

大學의 安定

명지대생 강경대검 치사 사건에 이어 외국어大에서의 鄭총리 수난 사건이 일어나자 서울 시내 각 언론을 비롯, 정부 기관과 대학에서마저 學園安定을 되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여론은 지난 7월 초 제주도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임시총회에서 그에 관한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는 결의를 보게 하였다. 이제 그 위원회에서 대학의 안정을 되찾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그 대책 수립에 참고될 만한 몇 가지 의견을 말하고자 한다.

첫째로 대학이 안정을 회복해야 한다는 우려는 언론의 수다스러운 보도와 이에 대한 즉각적이고도 과민한 반응에서 우려나온 측면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전국에는 5만 명 이상의 교수와 직원, 100만 명 이상의 대학생이 140여 개의 대학에서 집단 생활을 하고 있고, 이 곳은 탐구욕과 정의감이 가장 왕성한 젊은 세대와 이들을 교육하는 30代로부터 60代에 이르는 각 층별 기성세대가 함께 모여 있는 大生活集團이다. 그러므로 그곳에는 조화와 협력도 있지만, 각종의 갈등과 이해의 데립이 끊임없이 교차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토론이 제기되고 그 결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새로운 질서가 자리잡혀 나가는 것이 大學文化의 특징인 것이다. 따라서 大學은 내부의 갈등을 탐구의 호기심과 의욕을 자극하는 하나의 과제로 받아들이고 활발한 연구와 토론을 통하여 해결책의 모색에 나설 것이며, 社會는 대학의 이러한 모습을 인내와 여유와 신뢰를 가지고 지켜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大學人 스스로가 자신에게 제기된 새로운 과제 앞에서 초조하고 흥분한 나머지 경박하고 즉흥적인 대응을 추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제의 다면적인 복잡성을 단순화시켰을 때 그 결론이 어떻게 잘못 유도되는가는 학문 연구의 체험 속에서 쉽게 느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둘째로 대학이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갖가지 소요가 일어나는 데 관련되는 抗議主體의 조건이나 대학사회 및 국가사회의 客觀的 條件에 비추어 그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 근본을 바로잡는 데 대학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표피적인 대응책으로는 실사 일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새로운 불씨를 키우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朝鮮大 總長 李 敦 明

필자는 단기간의 대학행정 경험밖에 갖고 있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대학 내의 학생 소요는 그 현상을 학내 요인과 학외 요인으로 구분하고, 그것이 學內 要因일진대 각 대학이 그러한 분규가 일어나게 된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합리적 수준에서 과감하게 제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그것이 學外 要因일진대 그 요인이 그 대학 특유의 사정으로 일어난 것이면 그 대학이 관련 외부 기관 또는 세력과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그것이 全國的 現象으로서 정치권 혹은 행정부 측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전 대학이 합심협력하여 교육적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될 것이다.

최근 사태에서 예를 찾자면, 강경대첩 사건 후 부분적이었기는 하지만 많은 총·학생들은 정부에 대하여 6·29 이후의 국민의 민주화 열망에 부응할 수 있는 가시적인 민주화 정책을 단행할 것과, 특히 집회·시위에 관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사건은 소요 원인에 비추어 보면 학원 외의 문제로 그 잘못이 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 대하여 그 시정을 촉구했던 것은 지극히 타당한 해결책의 제시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한 달 후의 外大 사건에서는 일부 총·학생들이 학생 징계 강화를 위한 학칙 개정과 학사 행정의 강화, 학생회비 사용의 감독 강화, 학내 폭력 세력 척결 등을 주장한 것으로 보도되었고,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시행을 시달하고 있다. 물론 이 사건은 학원 안에서 있을 수 없는 불행한 사태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은 그 사태의 원인을 깊이 통찰하지 않고 성급하게 처방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外大 사건이 강의중인 선생님에 대한 때론적 폭행인가, 아니면 정치권이나 정부에 대한 과격한 항의인가는 그 사건이 바로 수사에 착수되었으므로 그 결과를 기다려서 학내 문제인가 학외 문제인가를 가리고 이에 따라 처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평소 대학에서는 올바른 교육질서나 면학기풍이 강조 되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학원 안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소요의 원인과는 직접 관계 되지 않는 위와 같은 조치들이 과연 얼마나 실효를 거둘 것인가는 의문이다.

아무튼 우리 대학들이 크고 작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가슴아픈 사실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참고 견디면서 사회 전체가 새로운 民主的 秩序를 만들어 가야 하는 과제 앞에서 대학도 적극 참여하는 자세로 일을 풀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